

보도시점 2026. 4. 22.(수) 초간 < 2026. 4. 21.(화) 14:00 >

중동 전쟁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 ㉓

중기부 제2차관, 카페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3차 간담회 진행
- 플라스틱 컵·비닐 등 카페 필수 소모품의 가격 및 납품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업계 차원의 다각적 협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향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제2차관 주재 소상공인 간담회 : 1차 제과점업(4.9), 2차 외식업(4.15)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 중동 전쟁 관련 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 (3차, 카페업) 개요 >

- **일시/장소** : 26. 4. 21.(화) 14:00 / 멜리플루어스 (서울 영등포구)
- **주요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및 회원,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 **주요내용**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 점검, 경영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 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안인 플라스틱 용기 가격 급등 문제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면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외국인 인력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등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그간 제과점업, 외식업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실제 여파가 더욱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4.15일부터 고시한 만큼, 포장 용기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포장 용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 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 추가 지정

- 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 : 매점매석 단속 대상
- ② 기초유분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 ③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 : 수급 불안 시 신속 지정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무근	(044-204-7823)